

## 광주시민의 삶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온 경찰

자치경찰제 5개월 달라진 치안 서비스

교통·방범 현장에 인력 집중배치  
시민 민원 업무 일사천리로 처리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때문에 출·퇴근길 교통 혼잡이 심하다는 시민 민원이 접수되자, 곧바로 실무위원회를 열고 각 현장별로 경찰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신속한 대응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잦은 교통사고 주변인 난폭 운전도 자치경찰제 이후 사실상 종적을 감췄다. 자치경찰위원회가 1호 시책으로 정하고, 속도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 덕분이었다.

김세훈 광주시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예전에 민원이 접수되면 광주시와 경찰청 담당자끼리 직접 연락한 뒤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니, 해결이 늦어지고 처리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제는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과 교육청, 시청 담당자들이 함께 있다보니 시민 생활에 밀접한 민원성 업무는 그때 그때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그 효과도 바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기대와 우려를 안고 출발한 광주시 자치경찰제가 시행 5개월째를 맞이하면서 시민의 삶 속으로 녹아들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면 시행한 자치경찰제에 맞춰 출범한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 중심의 '광주형 치안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출범 직후 첫 번째 시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정하고 광주경찰청과 공동으로 법규 위반 단속, 시설 개선, 홍보 활동에 집중한 결과,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이 급감하는 성

과를 냈다. 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단속건수는 대폭 늘었다. 지난 7월 이후 3개월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은 4만3357건, 주정차 위반 431건,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 65건 등 이었다. 위원회는 집중 단속과 병행해 보호구역 보행공간 확보 등 통학로 651곳의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 오토바이 폭주 민원에도 신속한 해결사로 나섰다. 이륜차 소유유발·불법개조·난폭운전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올해 이륜차 단속실적은 전년 3626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1만8787건을 기록했다. 집중 단속 덕분에 이륜차, 오토바이 소유 관련 민원이 급감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또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대책도 빠르게 마련해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경찰에 안전확보를 위한 계도·단속을 요구해 지난 7월 이후 100일간 4195건(331건 계도)을 단속했다. 안전도 미착용이 3485건으로 대부분이었으나, 이 중엔 음주·무면허 운전도 221건이나 적발됐다. 적극적인 단속이나 계도조치가 없었다면, 자칫 대형 사고가 우려됐던 대목이다.

요즘은 주취자 전담 응급의료센터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제한속도 운영,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등 시민의 삶을 질과 밀접한 치안력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세계)'를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범죄 예방 가상현실(VR) 활용 교육 등도 준비 중이다. 김대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광주시민 중심의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빠르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윤석열, 싸늘한 호남 민심 되돌리지 못했다

목포 DJ노벨평화상기념관 방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1박 2일에 걸쳐 광주·전남을 찾아 '전두환 옹호발언' 사고와 함께 김대중 정신 계승 의지를 밝혔지만, 싸늘하게 식은 호남 민심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방문 첫날 찾은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사과문을 낭독했지만 '잘못의 내용과 재발방지책'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틀째 찾은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김대중의 국민통합 정신'을 내세웠지만 정작 호남

지역 공약을 묻는 말에는 답변을 회피하면서다.

윤 후보는 11일 오전 목포 삼학도에 자리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찾아 둘러본 뒤 "국민통합으로 어려운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초석을 놓은 김대중 대통령의 행적과 지혜를 (이어받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김대중대통령 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에 위하면서 평생 살아 오신 분이요. 대통령이 되신 뒤로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분들 다 용서하셨다. IMF 국난에서는 국민통합이라는 큰 밑그림으로 국난을 극복해 나가셨다"며 재차 '국민통합'을 내세웠다. ▶2면으로 계속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군 비축 요소수 방출 11일 오후 광양항 인근 주유소에서 항만을 오가는 컨테이너 차량들을 대상으로 군이 비축하고 있던 요소수를 차량 1대당 30리터씩 판매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예산 7조원 시대 ... 전남, 본예산 10조 돌파

시, 재난지원금 지급·출산장려금 확대·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도, 코로나 극복에 방점, 서민경제 회복·중기 경쟁력 강화 집중

광주시가 7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본 예산안 기준으로 7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난지원금,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출산장려금,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인공지능, 광주형 뉴딜 사업 지원 등에 역점을 뒀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도 서민경제 회복과 행복시책 확대 기초를 반영해 편성한 10조 470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447억원이 증가해 본예산안 기준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섰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이날 내년도 예산 7조121억원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7290억원(11.6%) 증액된 것이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조6716억원, 특별회계

1조3405억원이다. 코로나19 지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정공원, 인공지능 등 역점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967억원(13.5%) 증액된 2조4922억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4049억원(12.7%) 증액된 3조5871억원이 반영됐다.

사회복지·보건 예산이 3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통 및 물류 12.8%, 일반 공공행정 11.8%, 문화·관광 5.6%, 공공질서·안전 3.1% 등

전남 교육연구정보원 이상한 장비 교체 ▶6면

복스 - 시골뱅집에서 군의 소리를 듣다 ▶14·15면

KIA 타이거즈 마무리 캠프 돌입 ▶18면

이다. 특히 공공질서·안전 예산이 올해보다 168.4%나 늘었다.

전남도가 제출한 1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명칭만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 첫 본예산 10조 시대를 맞아 도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농수축산업, 관광 등 전통산업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바이오, 2차 전지 등 미래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해 조화를 추구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생명영광의꿈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 대한민국 해상풍력 5대 강국 도약

### 전남형 상생 일자리 8.2GW 해상풍력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  
주민 이익 공유형·수산업 공존  
발전단지 조성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 조성  
해상풍력 기자재 및 연관기업  
450개사 유치·육성

'12만개 지역일자리' 창출  
최첨단(AI, ICT 등) 전문직군 및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그린수소 전주기  
메가 클러스터' 구축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